

# 2024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하반기) 심의총평

## 【 공연분야 】

2024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참여 예술인에 대한 심사를 면밀하게 살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창작과 발현을 잘 표현한 팀들이 많이 지원하여 고무적이었습니다. 공연 장소를 비울있게 배분하고자 하였고, 장르별 안배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수의 지원자 또는 단체를 선별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이번 지원자 및 지원팀의 색깔이 저마다 다양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향유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 경기도 권역 여러 분야의 예술가 활동 및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김현아  
심의위원 김진욱  
심의위원 오미현

# 2024 기획소득 예술인 페스티벌(하반기) 심의총평

## 【 전시분야 】

이번 기획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심의에서는 페스티벌의 명색답게 서양화, 동양화, 서예, 공예, 영상,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의 넓은 스펙트럼의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작업해 온 작가들의 지원이 많았으며 몇몇 비교적 신진 작가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수 작가의 작품의 결이 대중성으로는 페스티벌의 목적에 부합하나, 심의 평가에서는 작가가 자신만의 예술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있는 작가인지 살펴보았으며 출품작의 설명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지도 평가지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의 고민은 이와 같이 전통을 계승하는 예술장르와 현대미술 장르의 작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어 각 장르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최대한 살릴 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향후 사업이 진행된다면 기획전의 장르를 독립시켜서 각 부문별로 집중된 작가와 작업을 발굴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부문별 전시 기획과 선정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 기획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정(靜)'과 '동(動)'의 조화로움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양미학에서 '정'은 고요함과 안정성을 의미하며, '동'은 움직임과 변화, 그리고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두 개념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술작품 역시 이러한 균형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정'의 미학을 통해 얼마나 깊이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동'의 미학을 통해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진 작가들이 여러 명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현재의 역량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동'의 요소, 즉 발전 가능성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 인원은 예정보다 약간 초과하였으며, 이는 신진 작가들이 앞으로 '동'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정'과 '동'의 균형을 이루어 더 큰 예술적 성취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길민규  
심의위원   김선형  
심의위원   이지원